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제언



글 : 조 영 진 \_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예 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매우 궁금하였고, 요즘 사회복지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은 모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막연함에 고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것이다. 이러한 궁금증과 막연함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한다.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1일 4시간씩의 사회복지현장을 직접체험 해 봄으로써 현장에서 하는 일과 현장이 어떤 장소인지를 알고 나의 전공과 또는 나의 직

성과 사회복지가 맞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미래의 직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한 직업이 나에게 맞지 않아 고생하는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조금이나마 제거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는 몇 가지의 장단점이 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에서의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어 프로그램화되어 Client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론에서 배웠던 생태체계이론을 통하여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고 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사정을 하는 것에 대한 현장을 본다는 것은 이론으로만 머물렀던 교육이 현장에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해 줌으로써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많은 업무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으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만큼 업무를 보조해 주지는 못한다. 단순 업무에 국한되는 자원봉사자들에 비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일의 전달과정에서의 능률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체험하고 직업관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가져할 태도나 가치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막연한 직업에 대한 동경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질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회복지관인지 생활시설인지 생각이 없거나, 대상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장애인인지, 노인인지, 아동인지 등 무조건 시간만을 때우려는 경향의 예비사회복지사들이 많다는 점이다. 단순히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경력만을 쌓으려는 경향이 많다보니, 단순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는 시간의 문제이다. 1일 4시간의 시간에 얼마이다 보니 프로그램 중에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이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가능하다면 1일 4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종결할 수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일별로 정하여 참여하여 요일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예비사회복지사들의 현장 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전문화되지 못한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계획 및 준비, 실행은 물론, 차량운전에, 행정적인 일 처리 등 1인 다역의 슈퍼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고 하지



만 아직은 대부분의 현장이 전문능력 외에 추가적인 잡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이 고도화된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을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체험하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절망과 직업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체험한 예비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현장을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사회복지현장과 예비사회복지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 복지현장에 도움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양성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옥석을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매년마다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들은 수십만에 달하고 있으나 자질과 성향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예비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공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미리 선택하여 체험해보고 본인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면 취업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 사회복지현장과 예비사회복지사들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